

복합체에 관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

01 프로젝트 소개

02 CHAPTER 01. 당신의 콤플렉스는 무엇인가요?

26 CHAPTER 02. 콤플렉스에 관한 짧은 소설 - 휴먼 콤플렉스:임상사례_신스틱

42 CHAPTER 03. 오마이 콤플렉스 展 - 작가 9인의 이야기

<오마이 콤플렉스>는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2016 미트쉐어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자신의 작은 키, 뚱뚱한 몸, 낮은 코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많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콤플렉스라고 말한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변변치 못한 집안, 낮은 학력, 능력없는 부모가 누군가의 콤플렉스가 되기도 한다. 타인이 세워놓은 기준에 내 삶의 기준을 맞춰야 하는 현대인의 삶, 모든 이에게 사랑 받고 싶고, 부정적 시선을 받는 것이 두려운 우리들은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럴싸한 장치들로 자신을 꾸며내야만 마음이 놓인다. 그 과정에서 타인과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가 가진 환경들은 모두 ‘콤플렉스’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사회의 기준과 타인의 시선이 개인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이 땅의 한 개인이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나’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를 둘러싼 환경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Being) 자체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상처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된다고 한다. 콤플렉스도 그렇지 않을까? ‘이것이 나의 콤플렉스야’라고 타인과 세상 앞에 툭 내뱉는 순간, 콤플렉스는 더 이상 콤플렉스가 아닌 그저 ‘나’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된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사진으로 기록하거나, 세상 앞에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순간일 것이다. 프로젝트 <오마이 콤플렉스>는 콤플렉스를 공개한 이들 각자의 ‘용기의 순간’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프로젝트 진행 김민영, 김선옥, 이형선

CHAPTER

01

당신의 콤플렉스는 무엇인가요?

—
콤플렉스를,
말하고 듣고 나누고 기록하다.

사람들과 콤플렉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들게 된 콤플렉스의 대부분은 '나'에서 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 '남'에서 부터 시작한 것들이었다. 잇몸이 징그럽다고 웃지 못하게 했던 초등학교 선생님, 손이 못생겼다고 놀려대는 친구들, 넌 누굴 닮았냐고 구박하는 엄마. 이런 무책임한 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당연한 듯이 안고 살아간다. 특히, 한국 사회에선 단점을 놀리면서 웃고 친해지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는 것도, 내가 칭찬을 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장점을 물어보면 다들 콤플렉스를 털어 놓을때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한참 생각을 한 후에 겨우 한 두 개씩 꺼내 놓았다. 그 중 한 명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자신의 눈이 예쁘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녀는 '남'으로부터 얻게 된 장점이 하나 생긴 것이다. 우리의 사회적 특성상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보편화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안 좋은 피부, 징그러운 잇몸, 못생긴 손 모양, 두꺼운 허벅지. 그것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진짜 문제이지 않을까? 상대의 단점 보다는 서로의 아름다운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훈훈한 사회가 되기를 바래본다.

무책임한 시선이 만든 상처



조금득·파란 점

저는 정말 콤플렉스 덩어리예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잇몸이 징그럽다고 웃지 말라고 한 이후로 콤플렉스가 되었고,
5학년 때는 장난치다 앞니가 부러져서 고등학교 때까지 앞니가 하나 없이 학교에
다녔는데 그것도 콤플렉스였고요... 유치원 때 동생이 샤프로 찢어서 생긴 광대뼈에
있는 파란 점은 친구들이 놀려서 콤플렉스가 됐고요.



조금득·납작한 뒤통수

어렸을때

제가 너무 순해서 엄마가 눅혀 놓고 계속
일하러 나가서 뒷머리는 납작 해지고,
제때 걸지 못한 탓에 안장다리가 되었어요.

조금득·안장다리



“
저에게 콤플렉스란 무책임한 시선이
만든 상처나 장애 같은 거예요.
”

자신들이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남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발언들을 하고
그로 인해 당사자는 깊은 상처를 얻게 되고, 또 그것이 콤플렉스가 되었으니까요.

앉으나서나

제 키는 170cm

하지만, 앉은 키로는 180사이에서도 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앉았을 때 그들이 제 시선 아래 있기도 하니까요.

윤정석·긴 허리 짧은다리





윤정석·긴 허리 짧은다리2

그러나 일어나보면...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다리가 짧고 키가 작은게 콤플렉스여서

일부러 몸을 구부정하게 하고 다녔던 적도 있었었죠.

지금은 많이 극복했어요. 앉으나 서나 170!!

투박하고 거친 내손

Q. 당신의 콤플렉스는 무엇인가요?

손입니다.

손이 많이 큰 편이고, 마디도 굵고.. 많이 건조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곱고 작은 여자의 손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Q. 그것이 왜 콤플렉스인가요?

사람들과 손 인사를 하거나 손으로 접촉하는 일이 생길 때 건조하다, 손이 큰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남자 손 같다.’ ‘할머니 손 같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여자인 저에게 투박하게 느껴지는 느낌 때문에 속상한 적도 많았고, 조금이라도 부드럽고 작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텐데...한 적도 있고요.

Q. 그 콤플렉스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있나요? 숨겨야 한다면거나 위축이 든다면거나

음... 여름에는 덜 하는 편이지만, 나는 관찰을 때에도 신경을 써서 핸드크림을 발라야 한다는 것? 내가 나를 가꾸기 위해서가 아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발라야 한다고 생각하면 괜히 바르기 싫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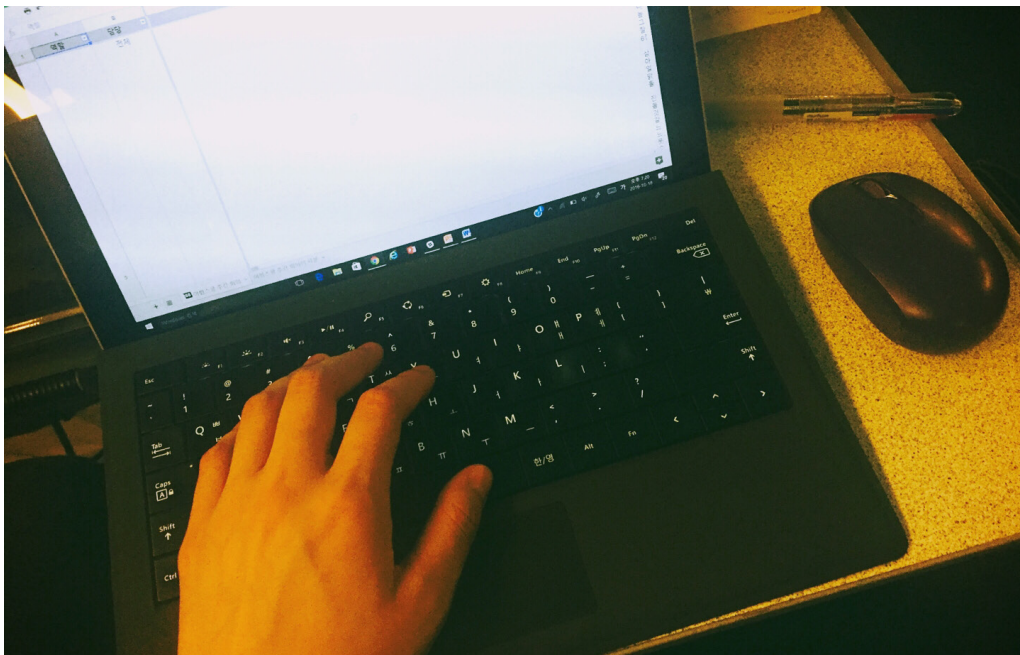


박자영·투박한 손

이전에는 손이 남자 같다.

할머니 손 같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때에는 손에 주름들을 수술하고 싶었고,
정말 자존감이 낮았던 한 때는 손을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도 느끼고 부모님을 힘들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박자영·큰 손



Q. 지금은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지금은 남자 손이 잡고 싶으면 내 손을 잡아라! 건조하다고 하면, 핸드크림 신경 써서 바르도록 하겠다!
 오히려 당당해졌어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부터 공기놀이할 때 항상 잘 잡아 이겼고, 피아노도 넓게 손을 벌려 칠 수 있었고, 구석에 물건들 잘 잡아 끌 수 있고, 물건을 잘 놓치지도 않고 잘 잡을 수 있고, 요리도 잘 하고, 과일도 잘 깎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까지! 또 제 손에 맞는 반지를 고르는 법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제가 무시하고 피했던 저를 받아들이면서 콤플렉스였던 손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Q. 콤플렉스를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 망설여지지는 않았나요?

오히려 남의 시선 때문에 공공 숨기고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제 손이 신경 쓰였고 누군가에게 보여 진다는 것에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오히려 상상의 나래를 펼쳤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손이 보여 지고 보여 질수록 전 저의 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외형에 가려진 제 손의 쓰임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추억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예쁘다는 말이, 신기했어요.



함금실·눈이 예쁘다고

남자친구가 눈이 예쁘다고 해줘서 신기했어요.

저는 외모комплек스가 심했어요.

지금은 마음가짐을 바꾸면서 예전만큼 위축되지는 않지만 아직도 외모 콤플렉스가 남아 있어요.

살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아서 살을 뺐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요.

어릴 적에 손에 습진도 많고 주름이 많아서 콤플렉스였는데, 사람들이 손이 예쁘다고 해서 그것도 신기했어요.

지금도 목주름은 저의 가장 큰 콤플렉스이긴 해요.



함금실·목주름

함금실·주름진 손



어설픈 시크녀 콤플렉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닳새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몸살을 앓았다. 19세를 지난 지 오래임에도 19금 영상, 특히 폭력 장면이 어려운 심약한 여자이다. 자신의 기질이 약함을 알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털털하고 개방적인, 시크한 척 구는 면이 있다. 대학 때 당한(?) 첫키스도 쿨한 척 넘기려 했지만, 뒤돌아 사시나무처럼 떠는 몸 때문에 상대에게 첫키스였음이 들통 나기도 하고, 친구의 센 농담에 미소로 넘어갔다가 며칠을 상처입어 고생하기도 했다. 소심하고 여린 심성이 드러나면 동물의 왕국에서처럼 잡혀 먹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 약함은 숨기려고 한다. 본성과 달리 센 척,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때면 어김없이 육체가 아프다. 지금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과 거리를 두고,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상대에게 표현하며 시크녀, 센 언니 콤플렉스와 작별하는 중이다.

사연:박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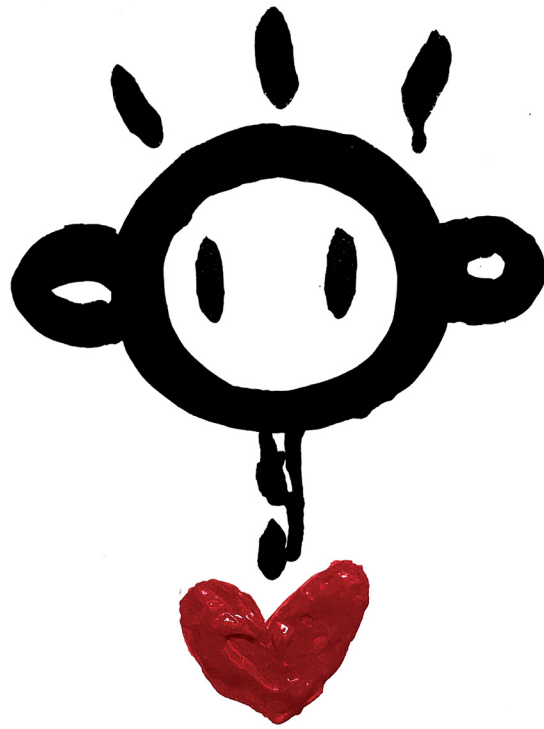


작가:지형섭

독한얼굴

“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점점 독해져 간다.

”
사연: 박수연



작가·지형섭

큰손



작가·지형섭

저는 키가 176cm입니다. 여자들 평균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인지 발도 크고 손도 크고 모든 게 컸어요.

신발은 일부러 발이 아플 정도로 딱 맞게 신기도 했고, 손 한 번 대보자 하는 친구들에게도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작은 손발이 너무 부러웠죠. 어렸을 때는 남들이랑 다르다는 게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쩌면 콤플렉스란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숨기고 싶은 게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나만의 무언가가 되는 것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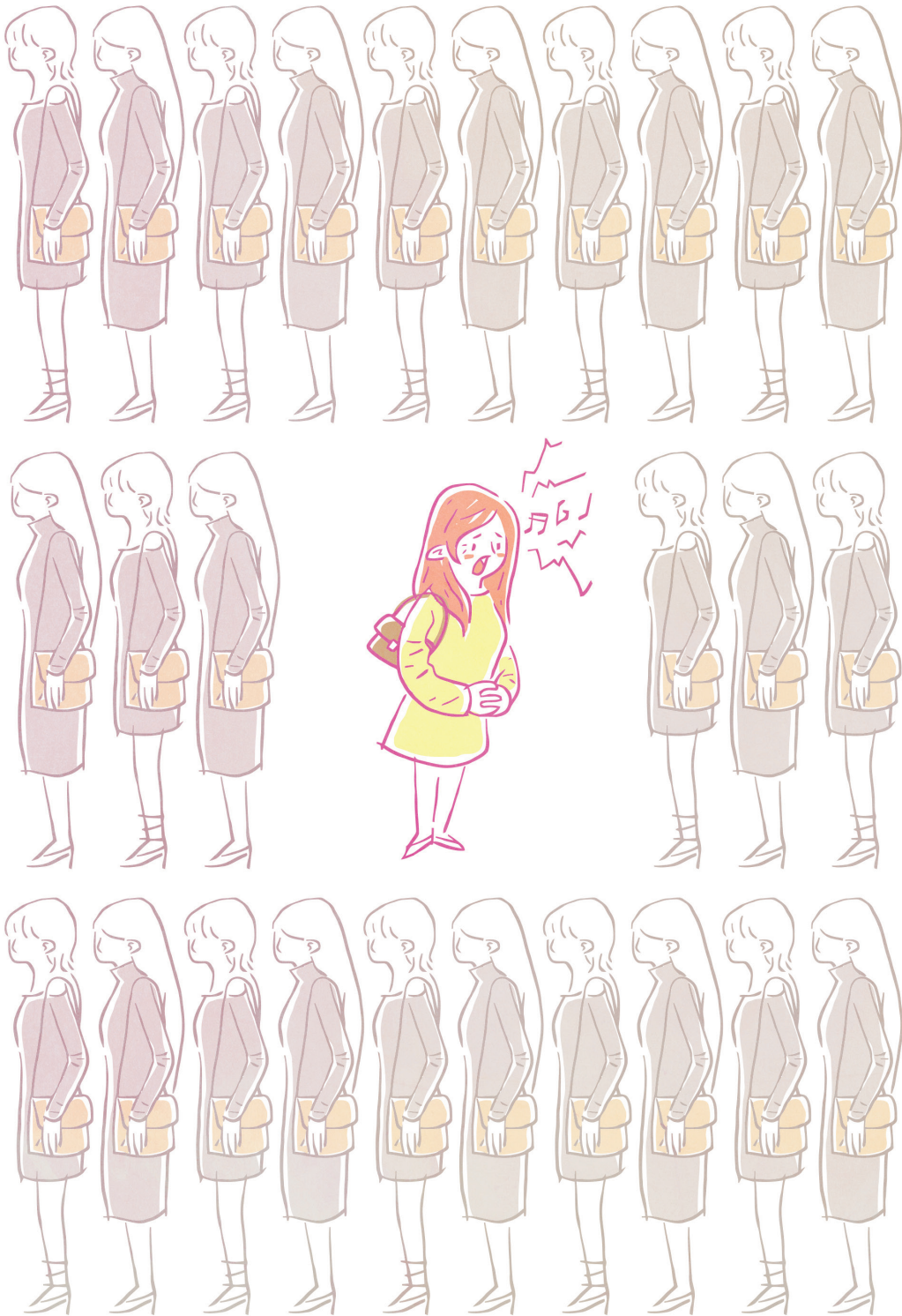
사연:박혜인

더 많지만 여기까지

콤플렉스라... 엄청 많다.

우선, 키가 작다. 작은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사회적 경향이 있다 보니 더욱 콤플렉스가 되는 것 같다. 다 음은 나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실수를 하다 보니 점점 소심해진다. 또 잘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못한다고 는 생각 안 해봤는데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남들의 평가에 자꾸 관심을 갖고 의기소침해진다. 그리고 가방 끈! 나와 함께 자라고 성장한 지인들은 다 명문대 출신에 박식하고 지혜로운데 난 그렇지 못해서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다. 싸운 적도 있다. 더 많지만 여기까지. 무엇보다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콤플렉스다. 삶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니까. 뻔뻔함이라도 있으면 빠져나올 텐데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다.

사연:이다인



작가:홍중훈

직업에 맞지 않게



작가:홍종훈

직업이 기자입니다.

단독을 건질 수만 있다면, 취재원의 입에서 원하는 답변을 꼬집어낼 수만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나라는 개인이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 의식 같은 건 잠시 잊거나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굴 수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직업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기업 홍보팀을 취재할 때, 그들의 고된 회사 생활이나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 이야기 등을 들을 때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신은 모르겠다며 발뺌하거나, 한 번만 봐달라며 애걸하는 그들의 목소리나 눈을 접할 때면 어느 새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곧 선배에게 혼나는 저를 발견합니다. 어서 먹이를 노리는 하이어나처럼 흔들림 없는 정신력으로 신속 정확하게 기사거리를 캐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직업이 기자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술을 잘 하지 못 합니다. 소주는 세 잔, 막걸리는 한 잔, 소맥은 세 잔까지 겨우 늘렸고, 맥주도 500cc 한 잔 마시는 데 1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얼마 전 대기업 홍보팀을 만났다가 식겁한 일이 있었습니다. 환한 대낮부터 친절하게 소맥을 맡아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몇 잔을 넘죽 받아 마시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요즘 저의 가장 큰 콤플렉스입니다. 흑.

사연:김승민

오히려 당당한 척

저는 남을 너무 많이 의식합니다.

그리고 예민하죠. 밤에 불을 끄면 못 자고 음악이 있어도 못 자고 조금만 시끄러워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인데 만들기를 정말 못해요. 손재주가 없어요. 외모적으로는 눈이 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할 뿐더러 아직 미혼이라서 그런지 눈 작은 것이 어느 순간부터 콤플렉스가 되었어요. 아, 학교를 조금 더 빨리 들어갔으면 벌써 아동복지과 자격증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요즘 콤플렉스이긴 하네요.

저는 그런데 콤플렉스를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괜히 더 당당한 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연:박화진

1. 남시선 의식



2. 여미민



3. 손재주



4. 작은 눈



5. 자격증



CHAPTER

03

오! 마이 콤플렉스 展

—
작가 9인의 이야기

전시 오마이 콤플렉스

오마이 콤플렉스 프로젝트에서는 콤플렉스를 주제로 작가들의 작업이 담긴 전시를 선보입니다.

오마이 콤플렉스 프로젝트 전시에서 작가들의 다양한 작업을 통해 흥미로운 콤플렉스의 세계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다채로운 해석과 시선을 통해 콤플렉스가 나에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콤플렉스를 단지 마음의 장애나

어려움이 아닌 좀 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콤플렉스는 단순히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기

이전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마음의 덩어리입니다.

그 덩어리의 실타래를 푸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의 존재를 더욱 잘 인지하게 되고

더욱 자연스러운 자신으로 살아 갈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일시 11. 14. 월~ 11. 19.토. 2016

전시 장소 시청역 NPO 센터 대강당

클로징 행사 11. 19.토. 14:00~17:00

예후

착한 아이

“사람은 장면으로 기억된다.” 라는 말이 있다.

엄마 하면, 굳게 닫힌 엄마의 방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몸이 약한 엄마는 누워서 쉬셔야 했던 날이 많았다. 고작해야 네다섯 살 된 아이였던 나는 아침 일찍 먼저 일어나도 보채지도 않고, 조용히 엄마가 나오길 기다리는 착한 아이였다. 엄마를 찾거나 떼쓰지 않는 나에게 가족들은 항상 착한 아이 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굳게 닫힌 엄마의 방문은 나를 착한 아이로 만들었다. 어른들이 말하는 착한 아이가 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감경이나 표현들을 억압했기 때문이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장롱은 어린 시절 엄마 대신 강하게 의지했던 기억의 재현이다. 엄마 냄새가 가득한 옷장을 마음껏 훑트려 놓거나 파고들어 잠을 청하는 모습은 어리광 부리고 싶었던 나와 재회를 유도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내면에 숨겨진 얼굴을 드러내는 기록이다.



01 여호1. 79.5 × 52.5cm, 디지털 프린트, 2015



02 여호2, 79.5 × 52.5cm, 디지털 프린트, 2015



03 여호3, 79.5 × 52.5cm, 디지털 프린트, 2015

이형선

숨은 사람 찾기

나는 단점이 참 많다. 아버지 어머니의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작은 체구, 여드름 피부, 예민한 성격, 안 좋은 식습관 등등.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나의 콤플렉스들을 나열해보니 대략 열다섯 개 정도 되었다. 얇은 머리카락, 지성피부, 얇은 팔다리, 작은 체구, 빠른 골반, 팔자걸음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콤플렉스들이 존재한다. 나를 포함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서너 개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작품의 초점은 그런 각각의 콤플렉스에 있지 않다. 이 작품에선 사람을 봐주길 바란다. 처음에 이 작품에 대해 떠올렸을 때만해도 사람들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공개하면서 그 콤플렉스에 대해 당당해지기를 원했다. 하지만 작품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콤플렉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콤플렉스의 진짜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또는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홀로 오롯이 서 있다. 아무 비교대상이 없을 때 그 인물은 비로소 그 인물 자체가 된다. 이번 작품엔 작가인 나도 촬영 대상이다. 살면서 혼자 서 있는 나의 전체 모습을 처음 보았다. 항상 키와 덩치가 작은 것이 콤플렉스였는데 저 사진속의 나는 그냥 나 자신이었다. 누구보다 작지도, 못나지도 않았다. 분명 누군가는 그 인물들을 보면서 '키가 작네, 머리가 크네, 다리가 굵네, 눈이 작네' 등 콤플렉스를 찾아내려 애를 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콤플렉스가 아닌 사람을 봐주었으면 한다. 키가 작은 사람, 피부가 안 좋은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그리고 나처럼 콤플렉스 덩어리인 사람, 그들 모두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01 승우. 33 x 50.8cm, 디지털 프린트, 2016



02 용석. 33 x 50.8cm, 디지털 프린트 ,2016



03 유진. 33 x 50.8cm, 디지털 프린트, 2016



04 형선. 33 x 50.8cm, 디지털 프린트 ,2016



05 희정. 33 x 50.8cm, 디지털 프린트, 2016

손빛나(루시온)

Yellow age

이전 작품에선 위인들의 삶에 포커스를 맞춰 달콤 씩씩한 청춘을 보낸 인물들의 모습을 노란 과일로 표현했었다. 이번 신작에선 각 인물들이 가졌던 콤플렉스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시대의 청춘들은 참 아프다. 외부의 요인들로도 힘들지만 자신의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도 힘들다. 그중 한 가지가 콤플렉스이다. 이번 yellow age 시리즈에선 다양한 인물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표현하고자 했다. 콤플렉스는 외모 콤플렉스, 슈퍼우먼 콤플렉스, 나폴레옹 콤플렉스, 신데렐라 콤플렉스 등등 그 이름도 종류도 참으로 다양할 만큼 많은 청춘들이 흔하게 겪고 있다. 콤플렉스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거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일그러진 현대인의 초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도 위인도 모두 콤플렉스가 있다. 모두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극복하고 참된 아름다움과 마음의 평화를 갖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우리는 싱그러운 과일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다. 나의 그림을 통해 콤플렉스를 겪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극복하길 바란다.



01 yellow age_로지. 39 x 39cm, 장지에 채색, 오브제, 2016



02 yellow age_엘사. 39 x 39cm, 장지에 채색, 오브제, 2016



03 yellow age_원더우먼. 39 x 39cm, 장지에 채색, 오브제, 2016



04 yellow age_마이클 잭슨. 39 x 39cm, 장지에 채색, 오브제, 2016



05 yellow age_모나리자, 54 x 73cm, 장지에 채색, 오브제, 2016

정다행

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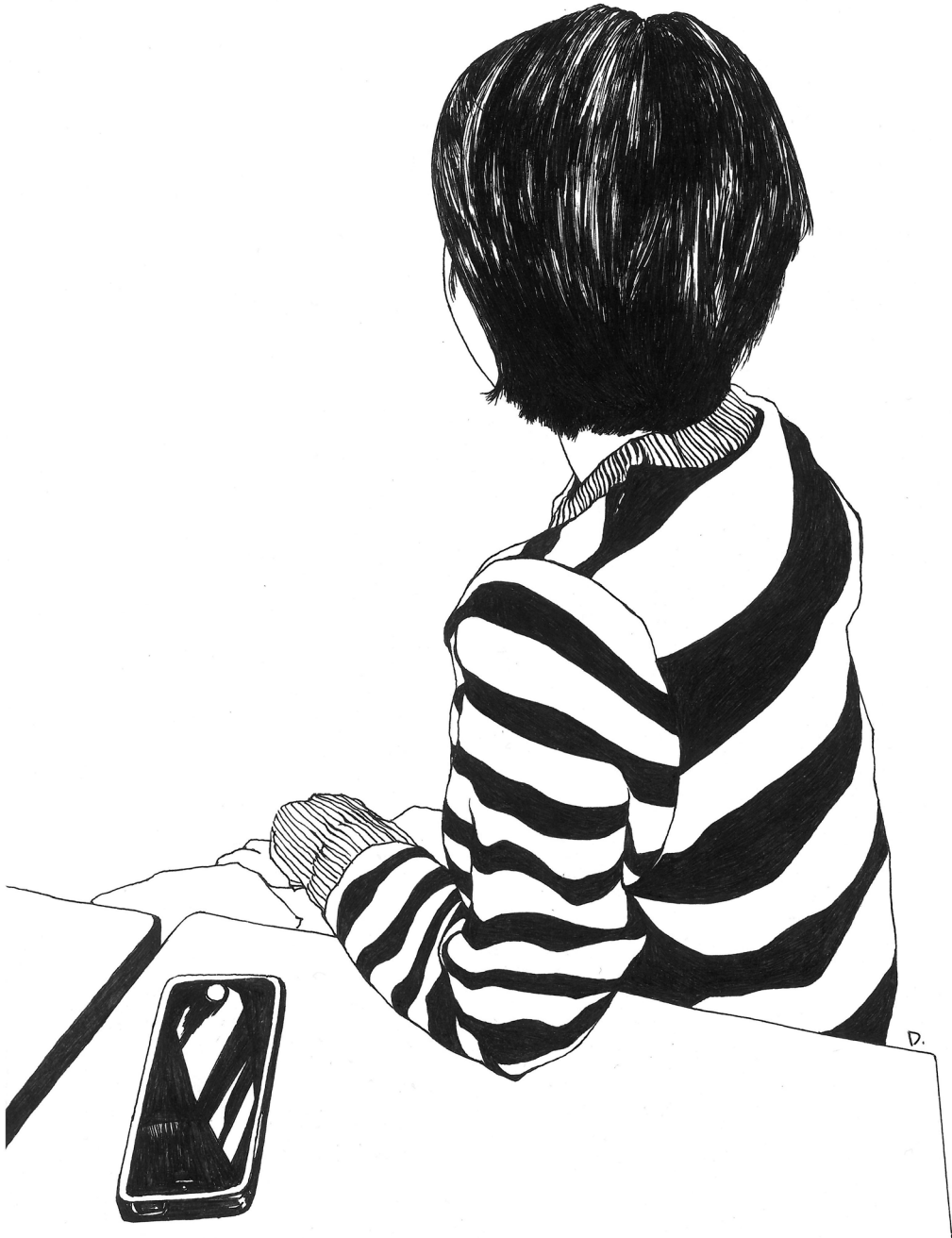
나는 콤플렉스 덩어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걱정하고 말한다면 상당할 것이다. 내가 가끔 스스로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말할 때면 사람들은 많이 의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놀란다. 콤플렉스라고는 모를 것 같은 애티튜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어릴 적 자신 없는 것들을 최대한 들키지 않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했다. 왜 그런 고민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나에겐 나름대로 정말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였다. 그때부터 푹 부러지는 눈초리, 망설임 없이 명료한 말투, 걸을 때 반듯한 어깨와 당당한 걸음걸이는 내가 만든 방패가 되었다. 거기에 타고난 성격 탓에 최소한의 말과 표정 그리고 웃음은 포커페이스를 하는 감을 일찍이 터득하는데 일조 했다. 물론 부작용이 따른다. 나의 걸음모습으로 판단하고 나에게서 강함을 당연시하며 기대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놓고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속을 제대로 들여다 봐주는 사람은 드물다. 내가 만든 단단

한 방패가 너무 제구실을 하는 탓이다. 단지 방패일 뿐인데 난 그렇게 늘 당당하고 상처 받지 않을 거 같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약한 모습을 들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만큼이나 상대가 나에게 속을 들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싫어진 것보다 싫어질 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더 별로인 것처럼 속을 들킬 거 같은 누군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싫다. 그 때문에 내 시선이 상대의 얼굴에 머물고 두 눈을 시종일관 바라보며 대화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보내고라도 알고 싶은 정말 좋은 상대가 아닌 이상 말이다. 몇 년 전에 생긴 안면그리기콤플렉스는 나의 콤플렉스 중 가장 최근의 것이며 이유도 모른 채 가장 풀기 힘든 콤플렉스였다. 사람의 얼굴을 그리려 하면 울렁거리고 많이 불편해진다. 그릴 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얼굴 하나 똑같이 그리는 것이 뭐가 이리 어려울까 하는 자책과 압박감은 설명할 길이 없었다. 이제 드는 생각이지만 아마도 상대의 마음을 읽어버리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에서 오는 심리적 어려움인지도 모르겠다. 상대를 집중하고 관찰하는 것이 나에겐 너무나 벅찬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다 우연히 어느 날부터 사람의 뒤에서 대상을 그려 보았고 그것이 '뒷모습' 그리고 또 다른 작업들의 시작이 되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은 계속 쪽 흘러가면서도 한 번씩 그 크기와 방향은 변한다. 여태 그러했듯이. 그러므로 '뒷모습(:BACK)'이 어떻게 변할지는 나도 모른다. 아직 '치유'까지는 아니어도 '콤플렉스가 더 이상 콤플렉스가 아닌 그저 나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항상 두렵다.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 작업으로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고백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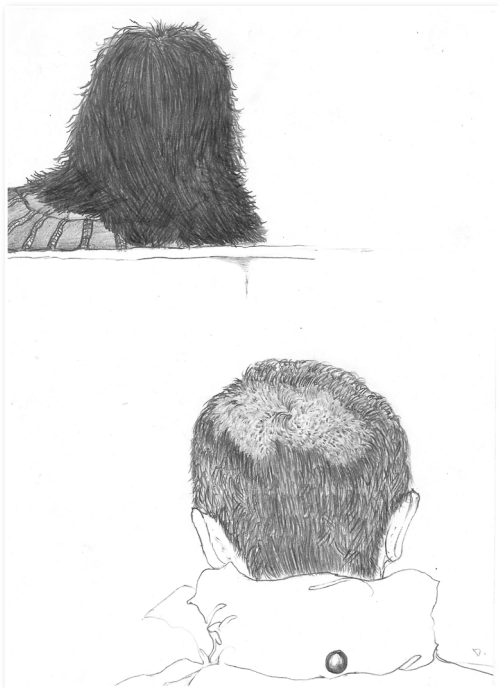
BACK(series)

#1~#28, 24x20cm, 20x2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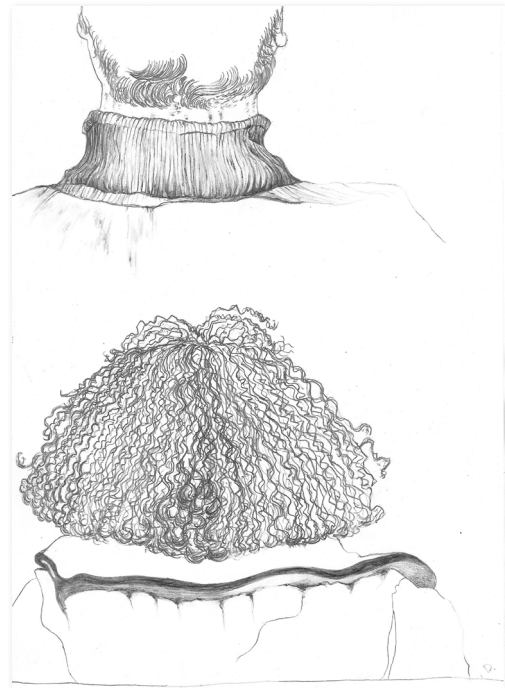
종이에 펜, 연필, 샤프, 2011 ~ 2016



#25



#1



#2



#4



#8



#6



#9



#3



#5



#7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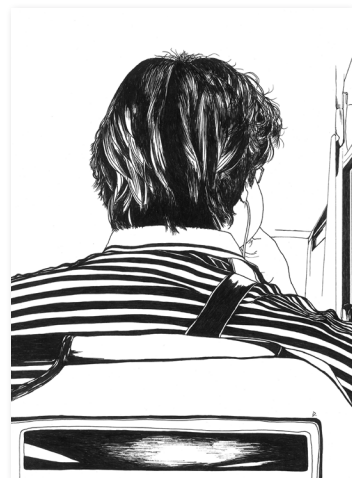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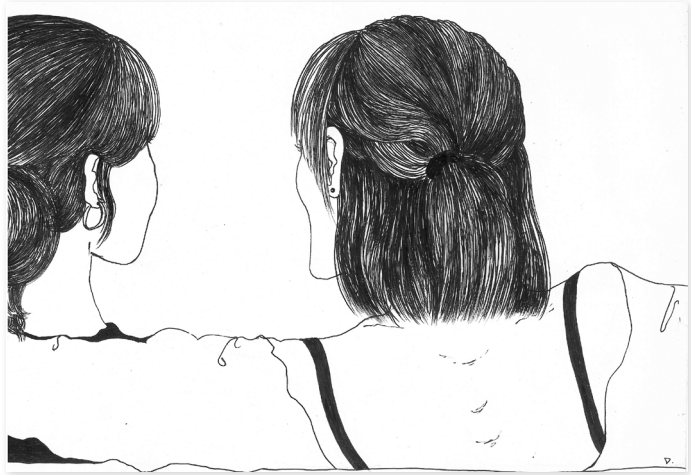
#19



#22



#24



#11



#10



#12



#20



#16



#26



#1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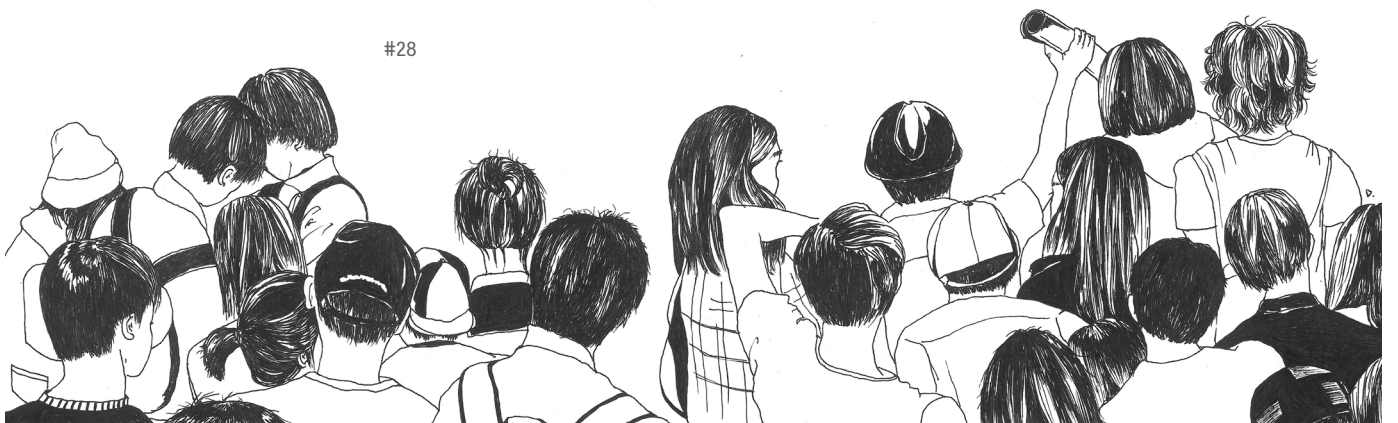
#18



#2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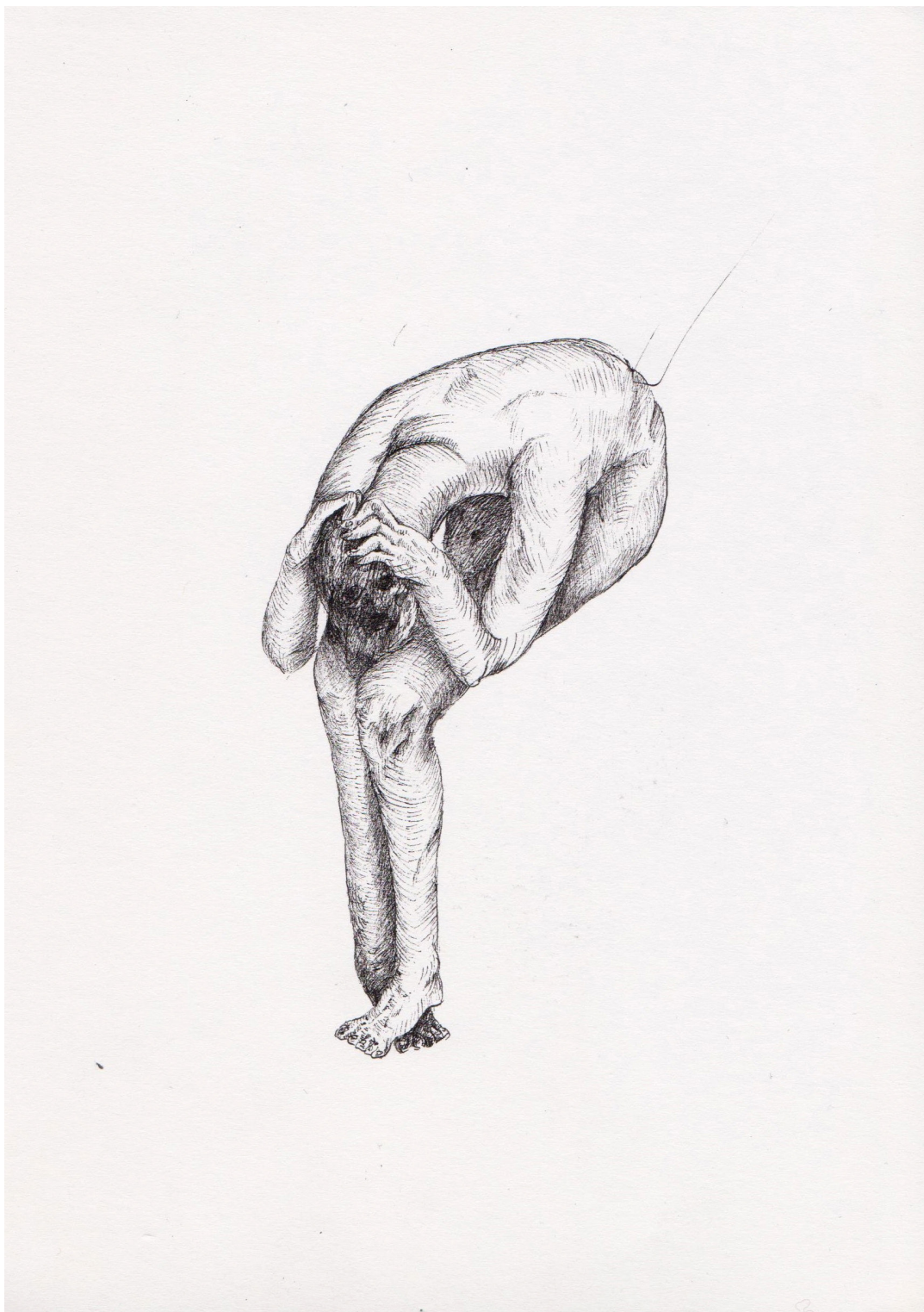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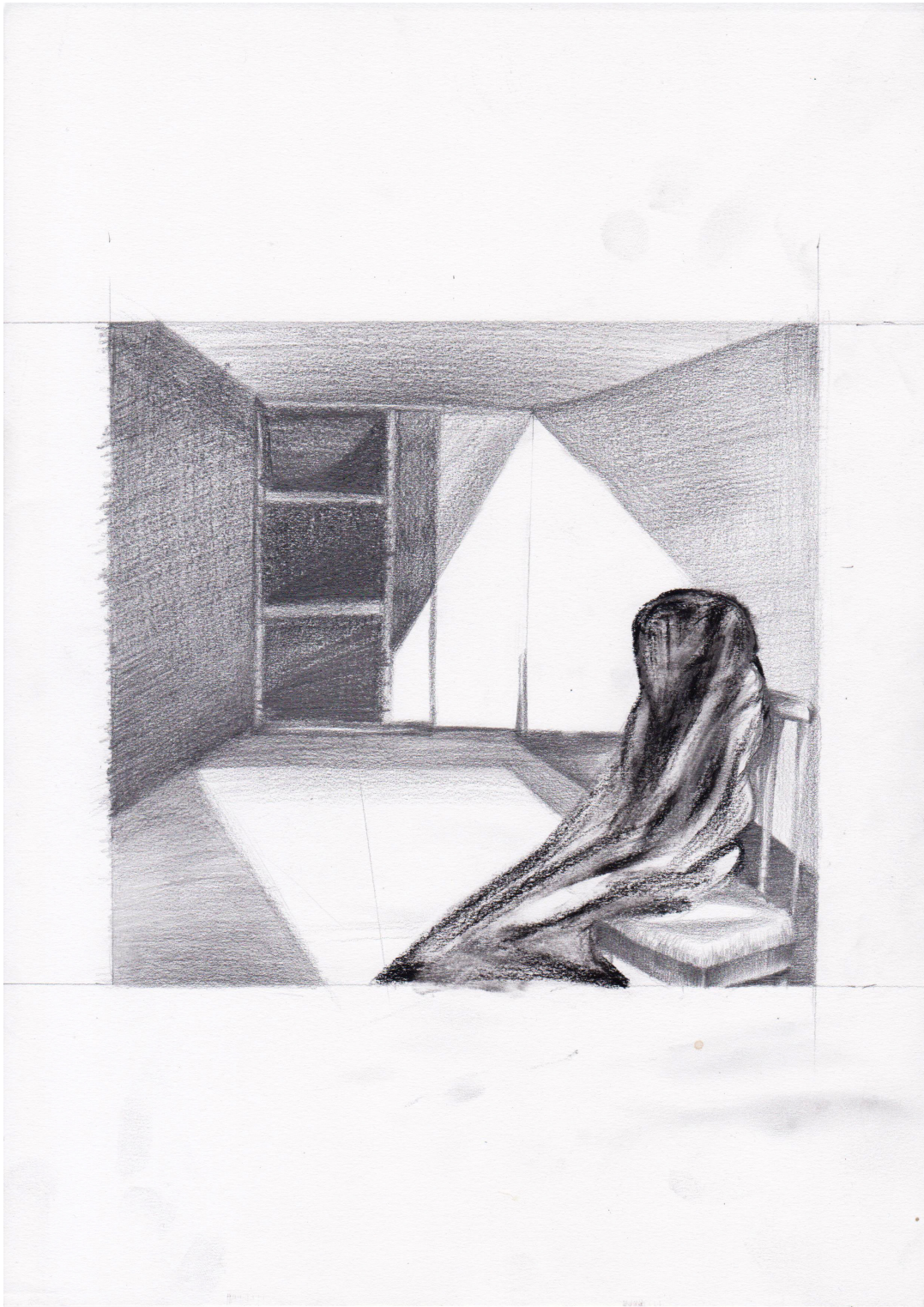
유태욱

틈(CRACK)

자신의 마음 속 수 없는 방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오고가는 그것은 현실에서 비롯된 열등감과 공포감으로 이루어진 정신적인 장치이다. 잊을만하면 다시 찾아오는 기억이 당시의 숨 막히는 서늘한 공기를 지금도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 결국 그것은, 과거로의 시간에 만들어진 삶의 오류로 범벅돼 있는 것이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을 회피하거나 받아들여 극복해야 한다지만, 그것과 자신과의 애증관계를 청산하는 건 쉽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조금씩 정신에서 육체마저 빼앗아 나를 대신하여 현실에 종속되는 것을 보고만 있게 되는 무기력감과 고통만이 죄여울 뿐이다. 그것은 어둠과 그 속에 많은 방들에서 숨어 지내다가 예고 없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매번 긴장한 채로도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지내지 못하는 불안한 습성이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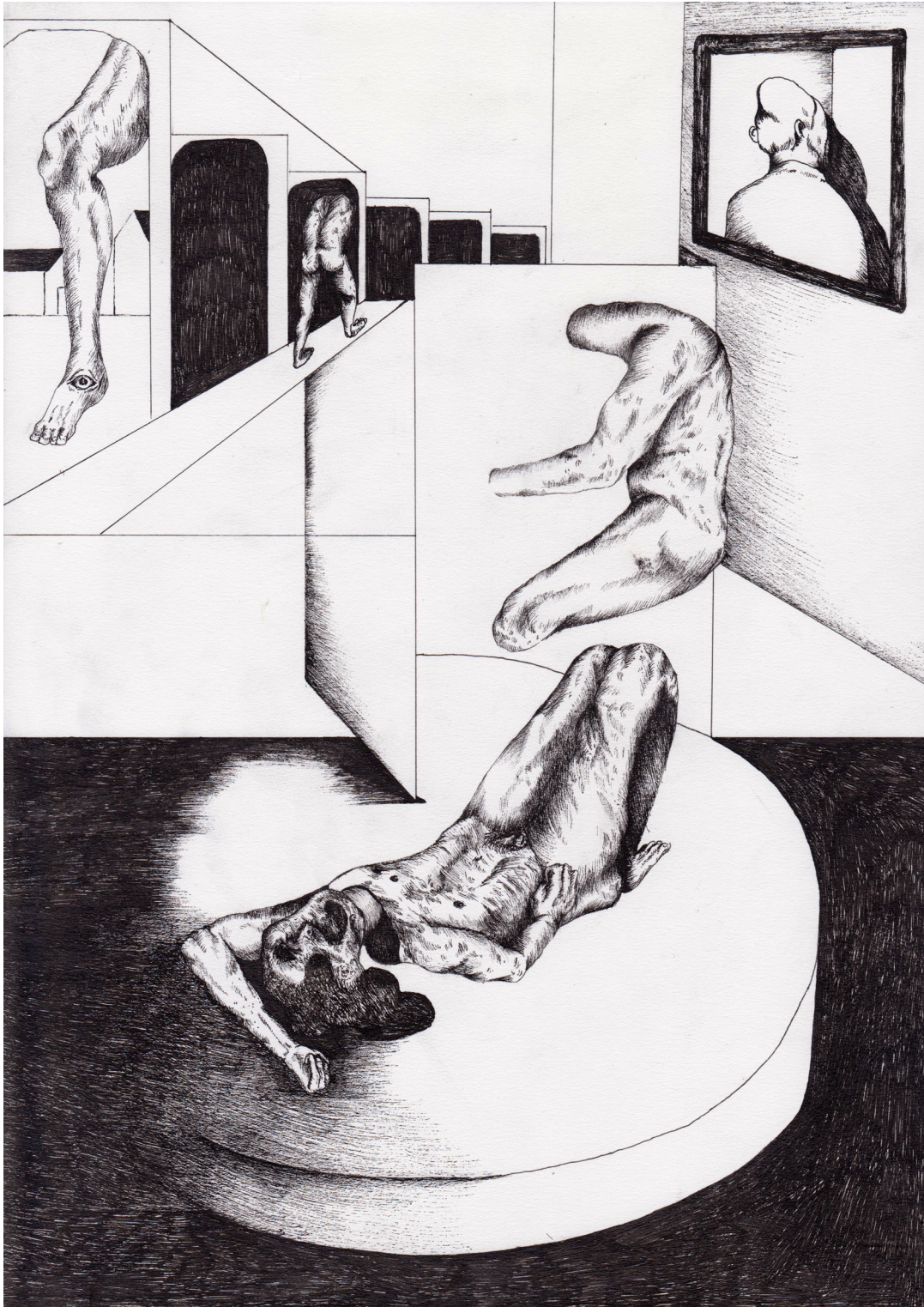
01 무제. 15 x 20.8cm, 풀이에 펜,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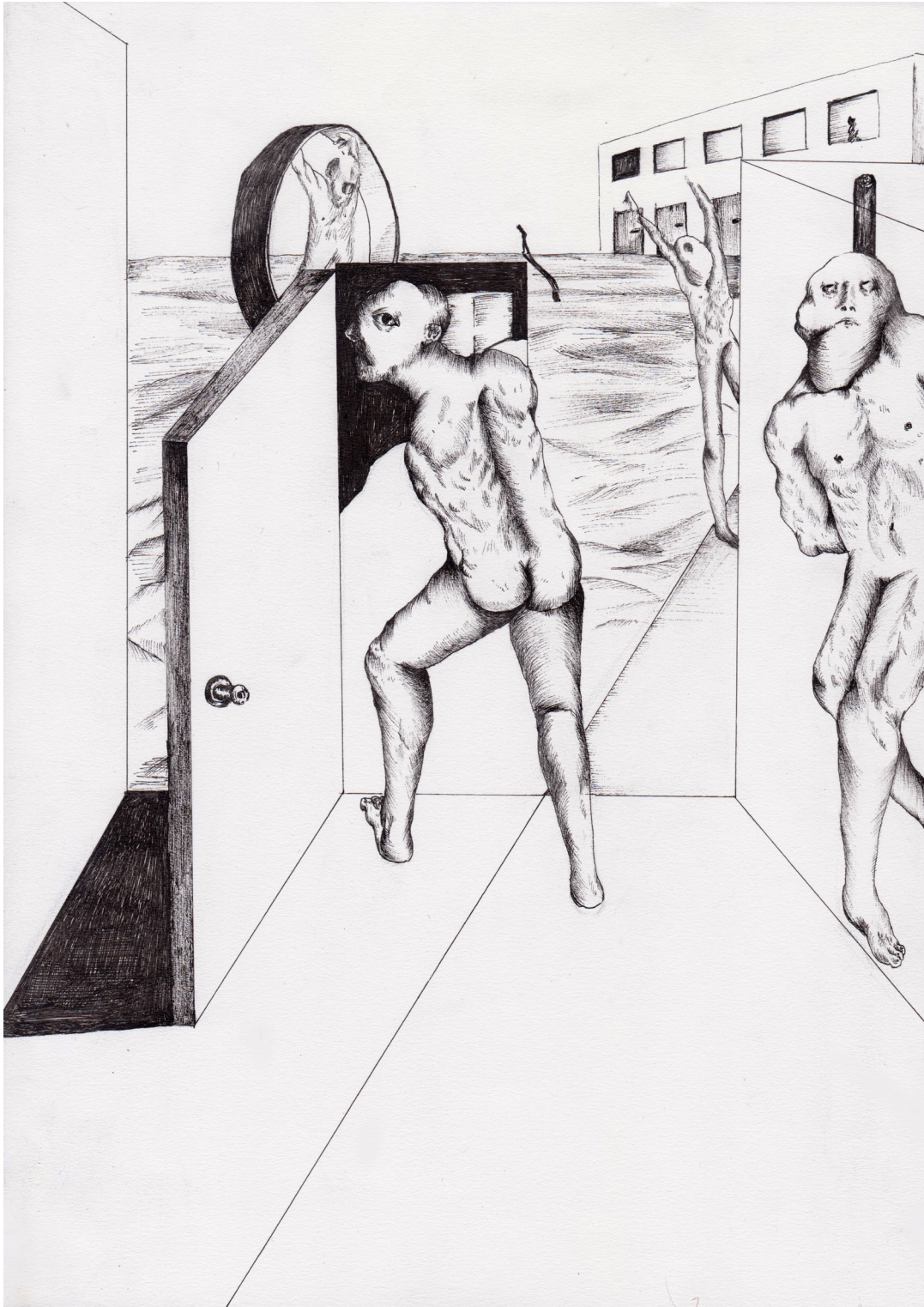
02 무제. 16 x 15cm, 종이에 콘테, 목탄, 2015



03 무제. 21 x 29.7cm, 종이에 콘테, 목탄, 2015



04 무제. 21 x 29.7cm, 종이에 펜,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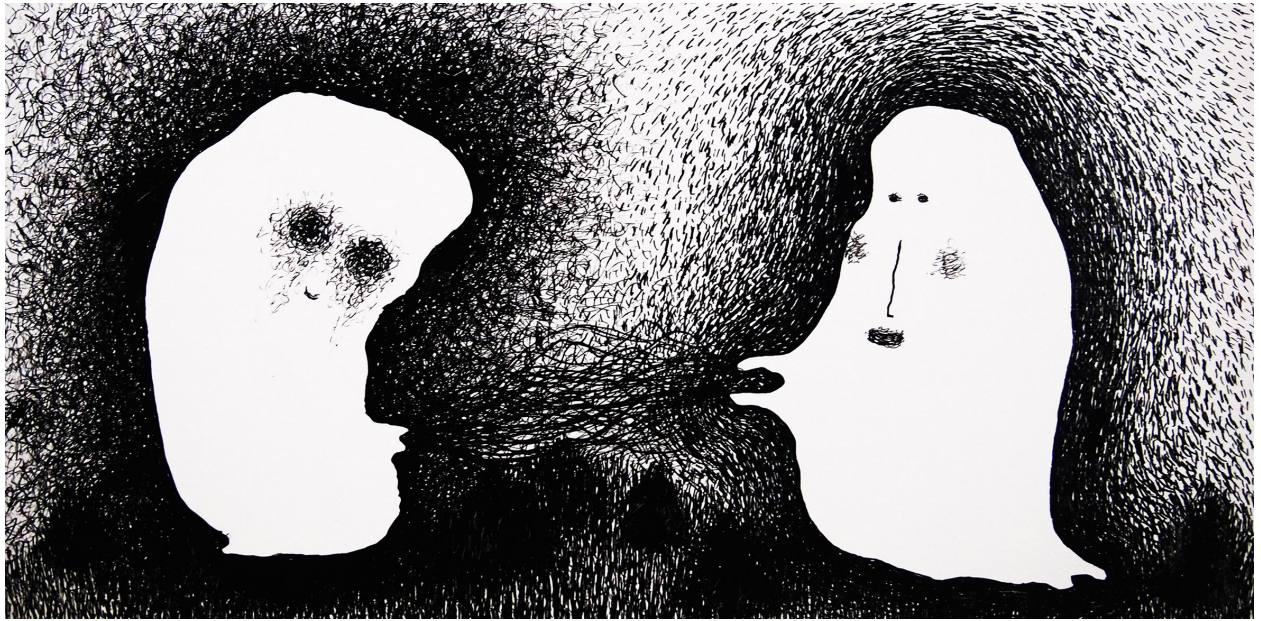


05 무제. 21 x 29.7cm, 종이에 펜, 2016

심은 줄

관계

콤플렉스는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감정적 관념이다. 그 콤플렉스는 어떠한 환경이 만들어준 선입견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늘 관계 속에 살아간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그들에 의한 내가 만들어진다. 사회적 환경에 갇힌 우리는 무엇이 진짜 나 인지 혼돈에 쌓인 채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인간은 한 없이 나약한 존재다. 내가 누군지 모를 만큼 수많은 '나'가 내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타인에게 비취지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라는 착각에 살아간다. 어쩌면 내가 아닌 나를 나인 듯 붙이고 입히고 덕지덕지 꾸며가며 살았지도 모른다. 가끔은 이렇게 비취진 내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다. 환경으로부터 덕지덕지 꾸미고 만들어진 내 모습은 꿈에서도 종종 나를 괴롭혔다. 나만의 세계가 누군가에게 방해받을 때의 감정은 미친 듯이 솟구쳐 올라 온 신경계가 다 터져 버릴 것만 같았다. 지독한 예민함. 병적인 분노.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들의 근원지는 어디일까. 인간의 내면엔 여러 방이 있고, 우리는 수많은 방을 돌아다닌다. 그 모습은 실체가 아닌 마치 동화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몬스터 같다. 나는 아무것도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작업에 임하고 싶다. 그렇게 순수하게 작업을 할 땐 또 다른 나를 맞이하는 낯선 시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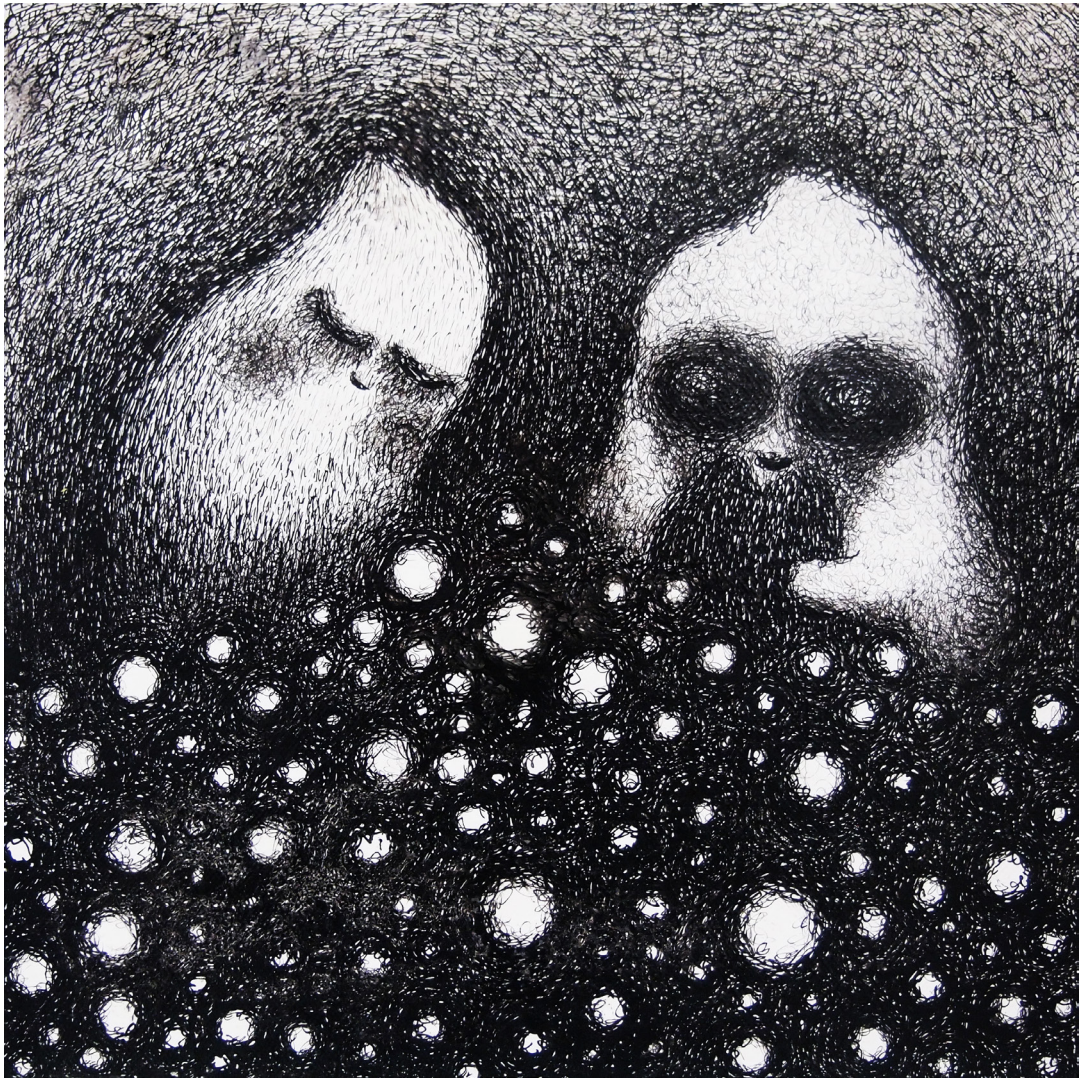
01 관계1. 40 x 20cm, 캔버스에 잉크, 2016



02 관계2, 30 x 30cm, 캔버스에 잉크, 2016



03 관계3, 30 x 30cm, 캔버스에 잉크, 2016



04 숨바꼭질. 30 x 30cm, 캔버스에 잉크, 2016



05 콤플렉스. 60.6 x 72.7cm, 캔버스에 잉크, 2016

김로사

Street carpet (채집된 카펫)

대다수의 나라가 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었고, 도시에는 자본, 경제, 노동, 교육, 문화 등 많은 것들이 집약되어 있다.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현대인에게 많은 기회와 선택권을 주고, 사람들은 혜택을 얻기 위해 대도시에 몰리게 된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기에, 기회와 선택은 제한된다. 그래서 도시인은 풍요로움을 선점하고 더 나은 자본을 지속해서 누리기 위해, 자본주의 사회의 격심한 생존경쟁에 내몰린다. 도시 환경과 사회적 구조에 따라 살아가고,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도시의 삶에 맞춰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은 '나는 누구인가?'보다는 '어느 길이 성공하는 길인가?'를 먼저 따진다. 그래서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선택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 고민도 할 겨를도 없이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의 삶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현대 도시인들을 내적자극이나 외적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여 사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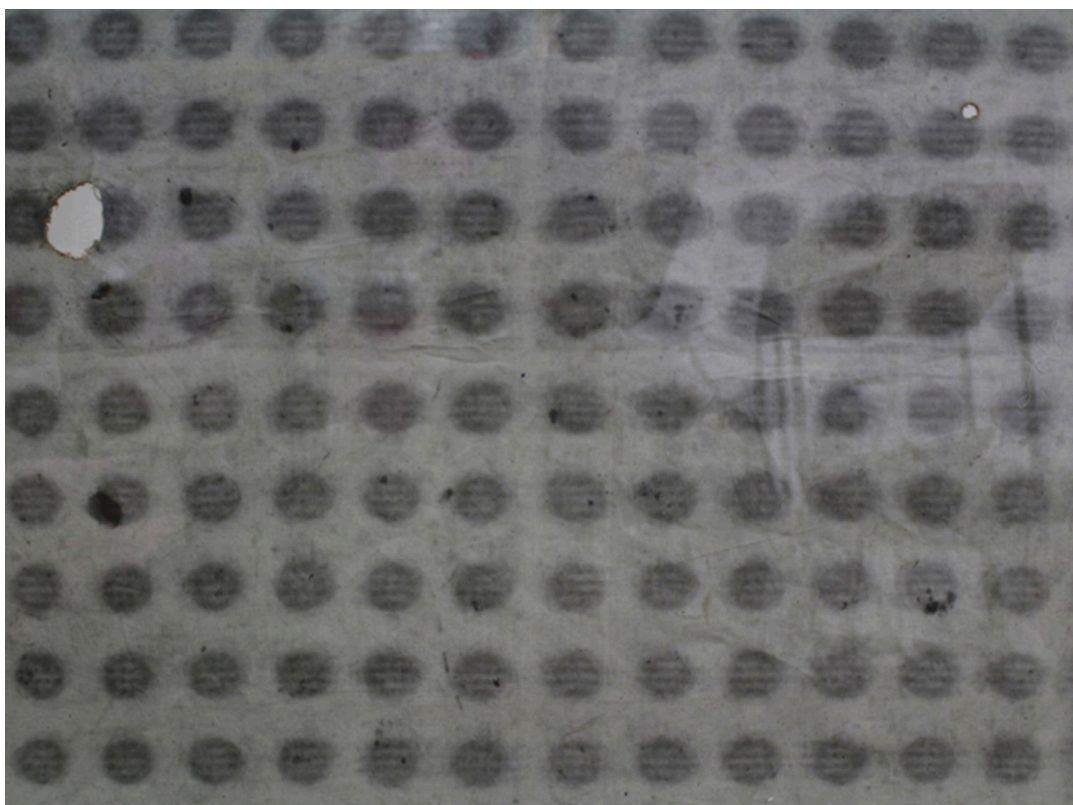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어 삶의 본성을 무력화 시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계산적인 욕망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콤플렉스로 발현된다. 나는 이러한 생존경쟁의 장소이자 현대인의 삶의 터전인 도시가 콤플렉스(마음의 응어리)를 만들게 되는 요소라고 보고, 현대 도시인의 끊임없이 걸어가고 돌아오는 삶을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인 걸음을 통해 그려내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보이는 방식은 익명적이며, 누구의 흔적인지 알 수 없게 감추어져 모호한 형태를 보인다. 이는 도시라는 거대한 집단 아래에 있는 개인의 가지게 되는 획일적인 행동양식처럼 개인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을 드러내며, 개인은 익명적인 불특정 다수가 되어 도시의 부분으로 자리하여 응어리진 형태로 표현된다.



01 street carpet I. 가변크기, cotton cloth, 2015



02 carpet II-홍대(hongdae), 68,5 x 50,5cm, cotton cloth, 2013



03 carpet III-홍[|(hongdae). 68,5 x 50,5cm, cotton cloth, 2013



04 people on the carpet. 50 x 150cm, mixed media,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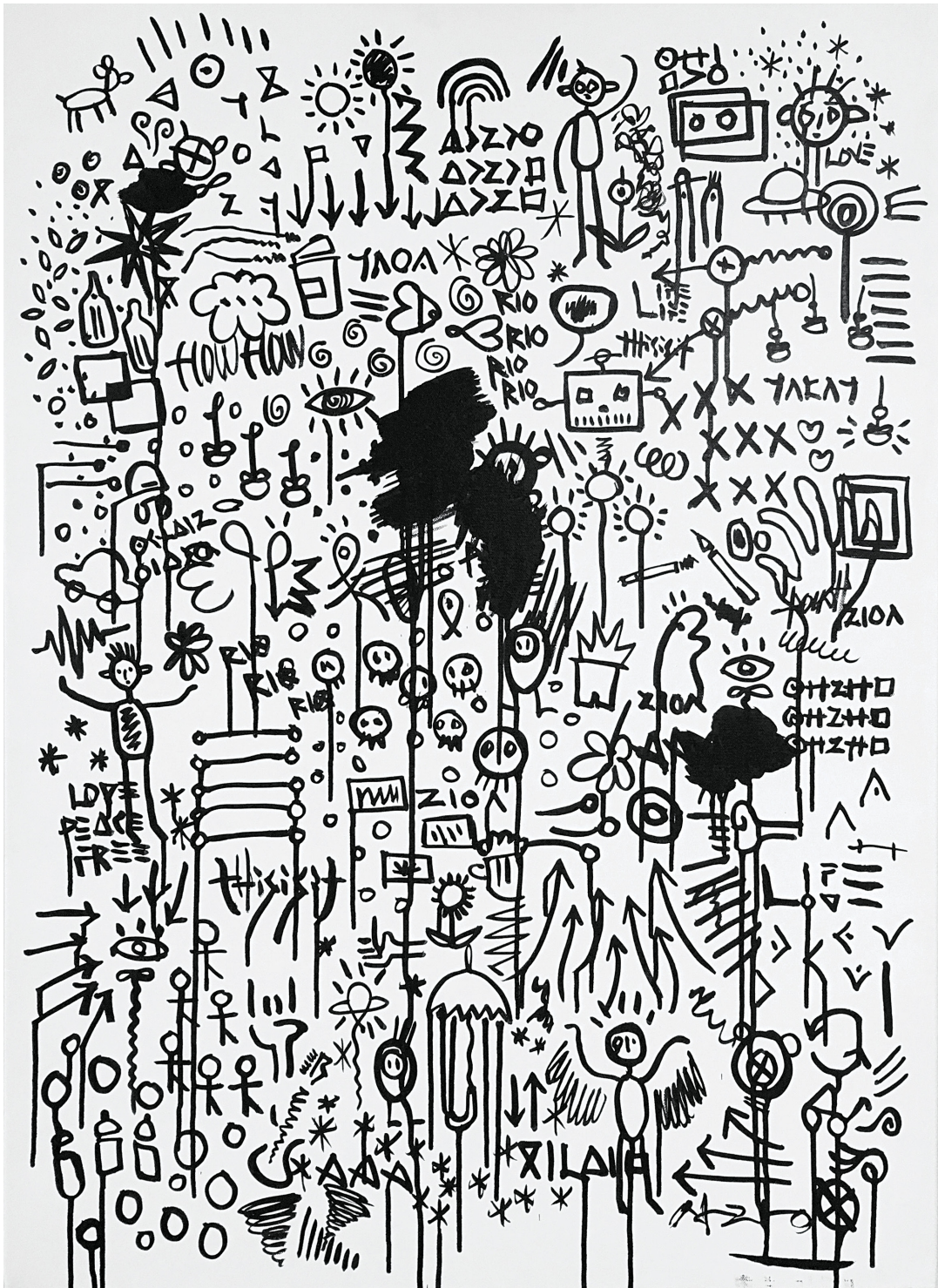
05 people on the carpet detail

지형섬 (Rio)

Good bye, Good Boy Syndrome

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착한 아이 증후군)가 강한 사람이었다. 아직 이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존재한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참아내고, 주변의 상황에 휘둘려서 무언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스로를 억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옳은 삶이라 믿었다. 지금은 조금 다르다. 나는 내면의 깊고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것을 뒤로하고, 꽤 오래 갈망했던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나의 그림은 이전의 나를 벗어나 지금의 나를 조금씩 발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흔적의 일부분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낙서 드로잉으로 그 흔적을 기록하고 표현한다. 기호나 상징, 이미지화 된 텍스트로 표현하는 이 드로잉들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나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남기는 것이다. 이번 작업은 그 흔적의 단편이다.



01 The Flow. 72.7 x 100cm, 캔버스에 잉크. 2016



02 The Story, 72.7 x 100cm, 캔버스에 잉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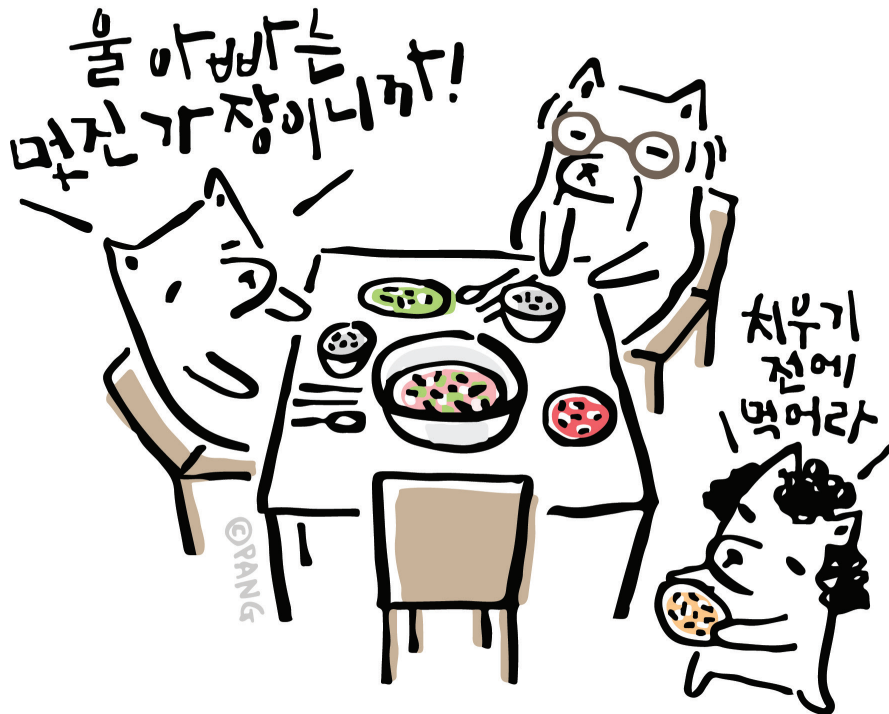
평

애니멀! 아나. 뭐? - 역할 콤플렉스시리즈

현대인은 모두 각각의 자리에 걸맞은 역할을 강요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결정되는 염색체의 다름을 기준으로 하는 '남성성, 여성성'일 때도 있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OO 씨의 남편, OO 씨의 부인, OO의 부모'일 때도 있으며, '수험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선생님, 자영업자'처럼 처한 위치나 직업에 따라 사회에 의해 부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보면 성별이나 가족 구성원 같은 태어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부여받게 되는 '선택 불가능 역할'과 유치원, 학교, 직장 등 선택 결과에 따른 '선택 가능 역할'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종합해 보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심지어 'OO의 아버지, OO의 할머니'같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죽어서도 떼어 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결국 현대사회에서 '역할'이란 '반강제성/강제성', '강요', '책임' 등의 형태를 띠고 많은 사람들에게 콤플렉스와 스트레스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에 <애니멀! 아나. 뭐? - 역할 콤플렉스시리즈>는 지독한 '역할'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동물들에게 투영한 블랙코미디 낙서를 통해 전달합니다.



가장의 자리

아빠는 가장이니깐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퇴근을 하고 싶을 뿐

퇴근을 시켜주시면
내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꿀꿀하니 말걸지마.

월요일은
원래 꿀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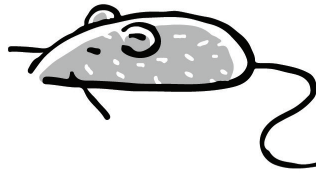


닭입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살려주십시오.
앞으로 지각 안 하겠습니다.

1. NO 총각 서대리(3X세)
금일 기획실 지조아씨와
대망의 소개팅 여제정



* 미용실도 다녀옴

2.



3.



아니라고 포장해도
세상은 많은 부분 외모지상주의

